

마태 27

- 1. 왕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지심.....1
- 2. 유다가 목매달고 죽음.....1
- 3. 왕께서 빌라도 앞에 서심.....3
- 4. 왕께서 바라바 대신 죽음에 넘겨지심.....5
- 5. 군사들이 왕을 조롱함.....7
- 6. 왕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.....8
- 7. 왕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.....11
- 8. 왕께서 부자의 무덤에 묻히심.....13
- 9. 군사들이 왕의 무덤을 지키심.....14

1. 왕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지심

(마 27:1) 아침이 되매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의논한 뒤에
 (마 27:2)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겨주니라.

(막 15:1) 아침에 수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협의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.

(눅 23:1) 그들의 온 무리가 일어나 그분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.

(요 18:28) 그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데려다가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.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더라.

2. 유다가 목매달고 죽음

(마 27:3) 그때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서른 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주며
 (마 27:4) 이르되,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, 하니 그들이 이르되,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? 네가 그것과 상관하라, 하거늘
 (마 27:5)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.

(행 1:18)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으므로
 (행 1:19) 그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밭로 아겔다마라 하니라. 그것은 곧 피 밭이라는 말이라.

(마 27:6) 수제사장들이 그 은들을 거두며 이르되, 그것은 피 값이므로 그것들을 성전 보고에 넣어 두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, 하고

(마 27:7) 의논한 뒤에 나그네들을 묻기 위해 그것들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더라.

(마 27:8) 그러므로 이 날까지 그 밭을 피 밭이라 하느니라.

(마 27:9)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니라. 일렀으되, 그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자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인 은 서른 개를 취하여

(마 27:10) [주]께서 내게 정하신 바와 같이 그것들을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도다, 하였느니라.

3. 왕께서 빌라도 앞에 서심

(마 27:11)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그분께 물어 이르되, 네가 유대인들의 [왕]이냐?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, 네가 말하는도다, 하시고

(마 27:12)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.

(마 27:13)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,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네가 듣지 못하느냐? 하되

(마 27:14) 그분께서 그에게 결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총독이 심히 이상히 여기더라.

(막 15:2) 빌라도가 그분께 묻되, 네가 유대인들의 [왕]이냐?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, 네가 그렇게 말하는도다, 하시니라.

(막 15:3) 수제사장들이 많은 일로 그분을 고소하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

(막 15:4) 빌라도가 다시 그분께 물어 이르되, 네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?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보라, 하되

(막 15:5) 예수님께서 여전히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빌라도가 이상히 여기더라.

(눅 23:2)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, 우리가 보니 이자가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카이사르에게 공세 내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[왕]이라 하더이다, 하매

(눅 23:3) 빌라도가 그분께 물어 이르되, 네가 유대인들의 [왕]이냐?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, 네가 그렇게 말하는도다, 하시니라.

(눅 23:4) 이에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이르되,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, 하매

(눅 23:5) 그들이 더욱 사나워져서 이르되, 그가 온 유대인 거주지에서 두루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곳까지 와서 백성을 선동하나이다, 하니

(요 18:29) 그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,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 무슨 고소거리를 가져오느냐? 하매

(요 18:30)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, 그가 범죄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그를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이다, 하거늘

(요 18:31)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,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, 하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르되,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나이다, 하니라.

(요 18:32)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 주시며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더라.

(요 18:33) 이에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그분께 이르되, 네가 유대인들의 [왕]이냐? 하매

(요 18:34)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, 네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,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가 그것을 말하였느냐? 하시니

(요 18:35) 빌라도가 대답하되, 내가 유대인이냐? 네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.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? 하매

(요 18:36)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, 내 왕국은 이 세상에

속하지 아니하니라.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.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, 하시니라.

(요 18:37)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, 그러면 네가 왕이냐?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,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는도다.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.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, 하시매

(요 18:38)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, 진리가 무엇이냐? 하더라.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,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.

4. 왕께서 바라바 대신 죽음에 넘겨지심

(마 27:15) 이제 그 명절이 되면 백성이 원하는 대로 총독이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주곤 하였는데
 (마 27:16) 그때에 그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더라.
 (마 27:17)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,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? 바라바냐,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? 하니
 (마 27:18)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.
 (마 27:19) ¶ 그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,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. 이 날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일로 시달렸나이다, 하더라.
 (마 27:20) 그러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그들이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매
 (마 27:21) 총독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, 너희는 내가 이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? 하니 그들이 이르되, 바라바로소이다, 하거늘
 (마 27:22)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, 그러면 그리스

(막 15:6) 이제 그 명절이 되면 그들이 어떤 죄수를 요구하든지 그가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주었더라.
 (막 15:7) 거기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와 함께 폭동을 일으킨 자들과 더불어 결박되었더라. 그가 폭동 중에 살인을 저질렀더라.
 (막 15:8) 무리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가 자기들에게 해 주던 대로 해 줄 것을 그에게 요구하기 시작하거늘
 (막 15:9) 빌라도가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,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[왕]을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? 하니
 (막 15:10) 이는 수제사장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.
 (막 15:11)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가 도리어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게 하매
 (막 15:12)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,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들의 [왕]이라 하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? 하니
 (막 15:13)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며,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, 하매
 (막 15:14)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, 무슨 까닭이냐, 그가 무슨 악한 일을

(눅 23:13)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을 함께 불러
 (눅 23:14) 그들에게 이르되, 너희가 이 사람을 내게로 데려와 백성을 나쁜 길로 이끄는 자라 하였도다. 보라, 내가 너희 앞에서 그를 조사하였으되 너희가 고소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고
 (눅 23:15) 내가 너희를 헤롯에게 보내었으나 그 역시 전혀 찾지 못하였도다. 보라, 그는 죽을 일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.
 (눅 23:16) 그러므로 내가 그를 징계하고 놓아주리라, 하니
 (눅 23:17) (이는 그 명절이 되면 그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.)
 (눅 23:18) 그들이 다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, 이 사람을 없애 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, 하니라.
 (눅 23:19) (그는 그 도시에서 일어난 어떤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더라.)
 (눅 23:20)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으나
 (눅 23:21)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, 그를 십자

(요 18:39) 그러나 유월절에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너희에게 있으니 그런즉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[왕]을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? 하매
 (요 18:40) 그때에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,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이니이다, 하니라. 이제 바라바는 강도더라.

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라? 하니 그들이 다 그에게 이르되,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, 하매 (마 27:23) 총독이 이르되, 무슨 까닭이냐,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? 하거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,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, 하더라. (마 27:24) ¶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,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, 하매 (마 27:25)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,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, 하니라. (마 27:26) ¶ 이에 그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.

하였느냐? 하니 그들이 더 심하게 소리를 지르며,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, 하니라. (막 15:15) 이에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.

가에 못 박으소서,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, 하매 (눅 23:22) 그가 그들에게 세 번째 이르되,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? 나는 그에게서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를 징계하고 가게 하리라, 하더라. (눅 23:23)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니 그들과 수제사장들의 목소리가 이기니라. (눅 23:24) 빌라도가 그들이 요구한 대로 되도록 선고하고 (눅 23:25) 그들이 원하던 자 곧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.

5. 군사들이 왕을 조롱함

(마 27:27) 이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공동 집회장으로 들어가 군사들의 온 부대를 그분께로 모으고

(마 27:28) 그분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더라.

(마 27:29) ¶ 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 주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, 만세, 유대인들의 [왕]이여! 하고

(마 27:30)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.

(마 27:31)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서 그 긴 옷을 벗기고 그분에게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가니라.

(막 15:16) 군사들이 그분을 끌고 프래토리움이라 하는 집회장으로 들어가 온 부대를 함께 모으고

(막 15:17) 자주색 옷을 그분께 입히며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

(막 15:18) 그분께 경례하기 시작하며 이르되, 만세, 유대인들의 [왕]이여! 하고

(막 15:19)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며 그분께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그분께 경배하더라.

(막 15:20)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에게 도로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가니라.

(요 19:2)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고

(요 19:3) 이르되, 만세, 유대인들의 [왕]이여! 하며 손으로 그분을 때리더라.

6. 왕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

(마 27:32)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이름의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(마 27:33)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에 이르렀더라.
 (마 27:34) † 그들이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.
 (마 27:35)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뽑아 나누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,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겹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,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.
 (마 27:36) 그들이 거기에 앉아 그분을 지켜보고 (마 27:37) 그분의 머리 위에 {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}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.
 (마 27:38) 그때에 그분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더라.
 (마 27:39) †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욕하며 (마 27:40) 이르되,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, 네 자신이나 구원하라. 네

(막 15:21)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매 그들이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(막 15:22) 그분을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라.
 (막 15:23) 그들이 몰약을 섞은 포도즙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그분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더라.
 (막 15:24)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나눌 때에 저마다 어느 것을 가질지 정하려고 그 옷들을 놓고 제비를 뽑더라.
 (막 15:25) 때가 세 시가 되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.
 (막 15:26) 그 위에 있던 그분의 죄명을 적은 글은 {유대인들의 왕}이라 기록되었더라.
 (막 15:27) 그들이 그분과 함께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그분의 왼쪽에 있더라.
 (막 15:28) 이로써,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,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.
 (막 15:29)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께 욕하며 이르되, 아하,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,

(눅 23:26) 그들이 그분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주고 그가 예수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였더라.
 (눅 23:27) ¶ 백성과 또 그분으로 인해 슬피 울며 애통하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오더라.
 (눅 23:28) 그러나 예수님께서서 그들을 향해 돌이키시며 이르시되, 예루살렘의 딸들아,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.
 (눅 23:29) 보라,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,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, 하리라.
 (눅 23:30) 그때에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기를, 우리 위에 무너지라, 하며 작은 산들에게 이르기를, 우리를 덮으라, 하리라.
 (눅 23:31)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런 일들을 행할진대 마른 것에는 무슨 일이 행해지리요? 하시니라.
 (눅 23:32) 또 다른 두 범 죄자도 죽게 되어 그분과 함께 끌려가니라.
 (눅 23:33)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

(요 19:17)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이 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.
 (요 19:18)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하나씩 못 박았으며 예수님은 한가운데 두었더라.
 (요 19:19) ¶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의 글은 {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}라 하더라.
 (요 19:20) 예수님께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그 도시에서 가까우므로 그때에 유대인들 중의 많은 자들이 이 명패를 읽더라. 그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.
 (요 19:21) 그때에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, 유대인들의 [왕]이라 쓰지 말고 그가 이르기를, 나는 유대인들의 [왕]이라, 했다고 쓰소서, 하니 (요 19:22) 빌라도가 응답하되,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다, 하니라.
 (요 19:23) ¶ 그때에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취해 네 몫으로 나누어 각 군사가 한 몫씩 차지하며 그분의 겹옷도 취하였는데 이제 이 겹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것이더라.

가 만일 [하나님]의 [아들] 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, 하고
 (마 27:41)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여 이르되,
 (마 27:42)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. 그가 이스라엘의 [왕]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.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.
 (마 27:43) 그가 [하나님]을 신뢰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져 내실 것이라. 그가 말하기를, 나는 [하나님]의 [아들]이라, 하였도다, 하며
 (마 27:44)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.

(막 15:30) 네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, 하고
 (막 15:31)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이르되,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.
 (막 15:32) 이스라엘의 [왕]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 지어다, 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욕하더라.

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.
 (눅 23:34) ¶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, [아버지]여,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.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, 하시더라.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(눅 23:35)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,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[하나님]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, 하더라.
 (눅 23:36) 또 군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분께 나와 식초를 바치며 (눅 23:37) 이르되, 네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라, 하더라.
 (눅 23:38) 그분 위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{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}이라 쓴 글도 있더라.
 (눅 23:39) ¶ 매달린 범죄자 중의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,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, 하되 (눅 23:40)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,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[하나님]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?
 (눅 23:41)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

(요 19:24)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,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정하기 위해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자, 하니 이것은,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겹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나이다, 하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. 그러므로 군사들이 이 일들을 행하였더라.
 (요 19:25) ¶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.
 (요 19:26)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, 여자여,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! 하시고 (요 19:27)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, 네 어머니를 보라!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.

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
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
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
였느니라, 하고

(눅 23:42) 예수님께 이르
되, [주]여, 주께서 주의 왕
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
기억하옵소서, 하매

(눅 23:43) 예수님께서 그에
게 이르시되, 진실로 내가
네게 이르노니, 오늘 네가
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
라, 하시니라.

7. 왕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

<p>(마 27:45) 이제 여섯 시부터 아홉 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.</p>	<p>(막 15:33) 여섯 시가 되매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아홉 시까지 있더라.</p>	<p>(눅 23:44) 그 때는 여섯 시쯤이며 어둠이 아홉 시까지 온 땅을 덮었더라.</p>	<p>(요 19:28)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, 내가 목마르다, 하시니</p>
<p>(마 27:46) 아홉 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, 엘리, 엘리, 라마 사박다니? 하시니 이것은 곧, 나의 [하나님]이여, 나의 [하나님]이여,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? 라는 말이다.</p>	<p>(막 15:34) 아홉 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, 엘리, 엘리, 라마 사박다니?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, 나의 [하나님]이여, 나의 [하나님]이여,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? 라는 말이다.</p>	<p>(눅 23:45)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. (눅 23:46) ¶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, [아버지]여,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,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.</p>	<p>(요 19:29)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. (요 19:30)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, 다 이루었다,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.</p>
<p>(마 27:47)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의 몇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,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, 하니</p>	<p>(막 15:35) 곁에 섰던 사람들 중의 몇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, 보라,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, 하니</p>	<p>(눅 23:47) 이제 백부장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[하나님]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,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, 하더라.</p>	<p>(요 19:30)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, 다 이루었다,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.</p>
<p>(마 27:48) 즉시 그들 중의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서 갈대에 달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거늘</p>	<p>(막 15:36)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식초에 가득 적서 갈대에 달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며 이르되, 가만 두라.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리는지 우리가 보자, 하더라.</p>	<p>(눅 23:48) 그것을 구경하러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도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는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</p>	<p>(요 19:30)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, 다 이루었다,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.</p>
<p>(마 27:49) 그 남은 자들이 이르되, 가만 두라.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우리가 보자, 하더라.</p>	<p>(막 15:37)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.</p>	<p>(눅 23:49)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들을 보더라.</p>	<p>(요 19:30)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, 다 이루었다,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.</p>
<p>(마 27:50) ¶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.</p>	<p>(막 15:38)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니라.</p>	<p>(눅 23:49)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들을 보더라.</p>	<p>(요 19:30)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, 다 이루었다,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.</p>
<p>(마 27:51) 이에, 보라,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</p>	<p>(막 15:39) ¶ 그분을 마주 보며 서 있던 백부장이 그분께서 이같이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, 진실로 이 사람은 [하나님]의 [아들]이었도다, 하더라.</p>	<p>(눅 23:49)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들을 보더라.</p>	<p>(요 19:30)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, 다 이루었다,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.</p>
<p>(마 27:52)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</p>	<p>(막 15:40)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더라.</p>	<p>(눅 23:49)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들을 보더라.</p>	<p>(요 19:30)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, 다 이루었다,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.</p>
<p>(마 27:53)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.</p>	<p>(막 15:40)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더라.</p>	<p>(눅 23:49)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들을 보더라.</p>	<p>(요 19:30)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, 다 이루었다,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.</p>

(마 27:54)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, 진실로 이분은 [하나님]의 [아들]이었다도다, 하더라.

(마 27:55) 거기에는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었는데

(마 27:56)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있더라.

(막 15:41) (그들은 또한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섬기던 자들이요) 또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더라.

8. 왕께서 부자의 무덤에 묻히심

(마 27:57) 저녁이 되었을 때에 요셉이라 하는 아리마대의 부자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.
 (마 27:58)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매 이에 빌라도가 몸을 넘겨주라고 명령하거늘
 (마 27:59) 요셉이 그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아마포로 싸서
 (마 27:60)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그 몸을 두고 큰 돌을 굴러 돌무덤 입구에 놓고 떠나가니라.
 (마 27:61)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더라.

(막 15:42) 그 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에
 (막 15:43) 아리마대의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니라.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, 역시 [하나님]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더라.
 (막 15:44) 빌라도는 그분께서 벌써 죽으셨을까 하고 이 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그분께서 죽은 지 오래되었느냐고 그에게 묻고
 (막 15:45) 백부장에게 그것을 알아본 뒤에 몸을 요셉에게 주매
 (막 15:46) 그가 고운 아마포를 사서 그분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돌무덤 속에 그분을 두고 돌을 굴러 돌무덤 입구에 놓으니라.
 (막 15:47)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분을 둔 곳을 보더라.

(눅 23:50) 보라,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회원이며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
 (눅 23:51) (그들의 결의와 행동에 찬성하지 아니한 바로 그 사람이더라.) 그는 유대인들의 도시 아리마대 출신으로 역시 [하나님]의 왕국을 기다리더라.
 (눅 23:52)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여
 (눅 23:53) 그 몸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결코 전에 사람을 둔 적이 없는 돌무덤 곧 돌 속에 판 돌무덤에 그 몸을 두니라.
 (눅 23:54) 그 날은 예비일이며 안식일이 다가오더라.
 (눅 23:55) 갈릴리에서부터 그분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를 따라가서 그 돌무덤을 보고 또 그분의 몸을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
 (눅 23:56) 돌아가서 향품과 기름을 예비한 뒤 명령에 따라 안식일에 안식하더라.

(요 19:38) 아리마대의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. 이 일 뒤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니라. 그러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.
 (요 19:39)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오니라.
 (요 19:40)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지내는 방식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아마포에 싸더라.
 (요 19:41)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 안에는 결코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 돌무덤이 있더라.
 (요 19:42)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일로 인해 예수님을 거기에 두니 이는 그 돌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더라.

9. 군사들이 왕의 무덤을 지킴

(마 27:62) 이제 그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와서

(마 27:63) 이르되, 각하,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 있을 때에 말하기를,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,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

(마 27:64) 그러므로 명령하사 그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.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가고 백성에게 이르되,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, 하면 마지막 잘못이 처음 것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다, 하매

(마 27:65)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,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굳게 지키라, 하거늘

(마 27:66)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을 세워 돌무덤을 굳게 지키니라.